

“웰컴 투 Abby's Book!”

초판본, 사인본, 절판본에 기분과 주인까지 갖춘 이태원의 책 사랑방 국내 최저가, “어디서도 이 값으론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은 점심을 아직 못 먹었다며 샌드위치 먹을 시간을 달라고 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표정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그가 내민 첫 마디 말은 “오늘 장사 다 했다”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인터뷰가 있던 날, 서점이 있는 건물 3층에선 공사가 한창이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망치 소리에 주인은 “웁스!”라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누가 봐도 장난스런 말투와 표정이었다.

이태원에 위치한 Abby's Book(에비스북)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소문의 주인공인 서점 주인, 김은희 대표(35)였다. “장사가 잘 안 돼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노래를 부를 것 같은 재밌는 주인 덕에 단골이 많다는 풍문은 서점 방문 3분 만에 기정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런 ‘문제의’ 사장이 운영하는 Abby's Book은 영어 중고 원어서적 전문서점이며 이태원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에게 사랑방으로 소문난 공간이다. 본래 인테리어 분야에서 일해 왔던 김 사장은 엄청난 양의 책을 구입해 읽는 독서광이었다. 서점에 대한 구상은 약 2년 간 외국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국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외국서적을 두루 접했던 그는 고국에

돌아가면 서점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했고, 2년 후 귀국을 하면서 그간 사두었던 다량의 원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곧장 그 해 6월,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근처(지난 해 말 이사를 해 현재는 해밀턴 호텔 부근에 위치해 있다)에 Abby's Book이라는 아담한 서점을 열었다.

“돈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돈 벌려면 소위 물장사를 해야죠. 돈 번다는 목보다는 즐겁기 위해 시작했어요. 서점을 열 당시에 녹사평역에 중고 영어 서적을 취급하는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22년 동안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곳 외에는 이처럼 현책 원어서적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이 전무했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즉시 나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Abby's Book 고객은 ‘프렌드’로 통한다

현재 Abby's Book의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총 2만여 권. 모두 영어 중고서적이다. 김 대표는 “한 종당 여러 권수를 확보해둔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 중고서적 혹은 대형서점 신간 외서코너 못잖게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다”고 설명했다. 픽션, 논픽션, 어린이

책, 시집, 과학교양서, 페미니즘 관련서, 잡지 등 서가 분류를 보니 콘텐츠의 다양성 면에선 대형서점 외서 코너에 버금간다. 사실 현 책이라는 특성도 있고, 언뜻 느껴지는 김 대표 성격으로 봐선 “그까이꺼 대중 합니다” 소리를 하며 정리도 안 해 두었을 법 한데, 서가에 꽂힌 책들은 새 책 못잖은 태를 자랑하며 잘 분류, 정리돼 있다.

김 대표는 동네가 동네인지라 우리와 다른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주 고객, 단골고객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미군들이 주 고객은 아니다. 김 대표는 대뜸 “노! 노! 개네들은 책 안 읽죠”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본래 미군들이 책에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 책 좀 읽는다 하는 미군들은 베이스(기지) 안의 반스앤노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곳을 찾지 않는다. Abby's Book을 이용하는 과란 눈의 손님들은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에서 온 영어 강사나 외국의 대학 교수진들이다. 그리고 내국인 중에는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원서를 구하려는 대학 교수들이 많다. 마침 대학 강단에 있다가 퇴직을 했다는 한 신사가 서점에 들어오자 김 대표는 얼른 손을 흔들며 “오셨어요! 오늘 그 인터뷰! 인터뷰 말씀 드렸었죠?”라며 잠깐 기다리란 표정을 짓는다. ‘나이 지긋한 손님들 과도 막역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다’는 말에 김 대표는 “프랜차이즈야 말로 우리 서점의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며 잠시 심표를 찍은 김 대표는 이곳 만큼 싼 가격에 중고 원서를 판매하는 곳도 없다며 어느 중고서점에 가도 만날 수 없는 Abby's Book만의 최저가를 자랑했다.

“보통 페이퍼북은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예요. 대형서점의 절반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헌책이니깐 싸게, 제 마음대로 받아도 문제가 안 되죠. 저 기부파예요. 기분 좋은 손님이면 제 마음대로 줘야 합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 구입하면 시일이 걸리고 ‘차지charge’가 붙기 때문에 ‘장난’이 아니게 비쌌습니다.”

초판본, 절판본, 사인본 등 콜렉터들도 입맛 다시는 엔티크들

콘텐츠 특성상 외국에 자주 나가야겠다는 질문에 김 사장은 또 한번 장난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돈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였다. 실제로 서점 운영이 잘 되면 새 책을 계속 들여 오겠지만 그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다. 사실 새로운 콘텐츠의 책이 급히 필요할 일은 없다.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읽던 책을 교환, 판매하는 게 몸에 배 있어서 이곳의 책들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된다. 교환문화에 익숙한 몇몇 외국인들은 이렇게 싼 책을 보고도 비싸다며 흥정을 한다. 교환시장이 일반화된 외국에선 누가 입던 팬티도 50센트에서 1달러에 판매할 정도인데 뭐가 이리 비싸냐는 것. 물론 고분고분 값을 깎아줄 김 대표가 아니다. 그 시원스런 목소리로 “비행기표 따져봐!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어?” 소리를 하면 그들은 얼른 꼬리를 내린다.

그러나 누구도 흥정을 하지 못하는 책이 몇 권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서점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 부를 만한 책들이

다. 서점 서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서양의 유명한 초판본, 사인본, 절판본이 숨겨져 있다.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 다른 책들처럼 평범하게 서가에 꽂혀있다. 필벽의 사인이 들어간 책부터 바이런의 초판 시집 등 헌책 콜렉터들이 입맛을 다실만한 ‘값 나가는 엔티크들’이다.

“바이런 시집 초판, 필벽 사인본 등은 정말 값으로 치기가 힘들걸요. 아시겠지만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말씀 듣고보니 정말 없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군요.(웃음) 판매도 판매지만 소장 가치가 높은 귀한 것이니 참고하거나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구나 환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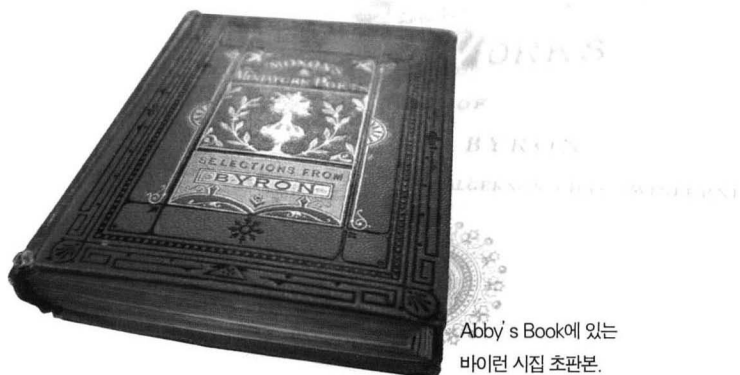
제대로 매출 올려보는 게 올해 소망... 북카페, 홈페이지, 골문 열어

겉으로 장사 수완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김 대표는 “장사 참 못한다” 소리를 자주 들어왔다고 한다. 북마스터처럼 특정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만약 고객이 원하는 책이 이곳에 없을 땐 그걸 구할 수 있는 다른 중고 서점 약도까지 알려주니 오지랖 넓은 소리를 들을 법도 하다. 그는 “장인정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 마인드 때문에 돈 못 벌어요!”라며 멋쩍게 웃었다.

“마음에 맞으면 싸게 주는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분위기로 봐선 아무리 돈 벌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걸로 큰 성공을 하긴 힘들습니다. 그야 말로 책을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엄청난 대박은 꿈 못 꾸죠. 여자 직업으로는 참 좋은 직업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좋아서 한 일을 접을 순 없죠. 어떻게든 올해는 매출이라는 게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웃음)”

Abby's Book의 Abby는 김 대표의 하나 밖에 없는 딸의 이름이다. 지난 몇 년 간 미국에서 지내던 딸은 얼마 전 한국에 왔다. 기분파인 엄마는 딸의 귀국 축하 기념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런 인심은 자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스템을 갖춰볼 생각이다. 그래야 더 오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겠단 판단에서다. 우선 한쪽에 마련된 공간을 정식 북카페로 개방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하루 빨리 만들어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곳에 있는 헌 책을 발송해주는 게 올해의 목표! 사진기 셔터소리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야 예쁜가?”라며 스카프를 고쳐 매던 김 대표는 “영어책 필요하신 분도 좋고, 이곳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오세요!”라며 불특정 다수 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한글**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Abby's Book에 있는 바이런 시집 초판본.